

노인 10명중 9명 “연명치료 반대”

보건사회연 실태조사...고통스런 생명연장 원치않아

유서작성·교육수강 등 적극적 죽음설계 노력 드물어

재산 사회환원 4.2%에 불과...절반은 자녀 균등배분 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그러나 노인의 바람과 달리 실제로는 인공호흡기 등에 의지해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다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 1474명의 연명치료 진료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명 중 3명 정도(27.8%)는 임종 전까지 인공호흡기, 인공영양공급을 비롯한 연명치료를 받았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 치료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항암치료나 심폐소생술 등 공격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병동도 아직까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바람직한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 노인의 절반인 52.3%는 자녀에게 균등 배분하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15.2%는 자신(배우자 포함)을 위해 쓰는 게 좋다고 했으며 11.4%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7.0%는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6.3%는 장남에게만, 3.3%는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고 했다. 반면 재산 전체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노인은 4.2%에 불과했다.

여전히 전통적인 자녀상속을 선호하면서 그 내용은 자녀 균등 분배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사회환원에 대해서는 아직 거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산 전체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노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묘지(29.1%)·수어(11.2%)·상조회 가입(6.7%)에 그칠 뿐, 유서작성(0.5%)이나 죽음준비 교육수강(0.6%)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는 산골(散骨·화장한 뱃가루를 강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법) 3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 22.9% ▲자연장 9.6%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1.3% 등이었다.

신신기증을 생각해본 노인은 2.2%로 소수에 그쳤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7%, 여자 58.3%)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으로 노인실태를 조사했다.

이중행기자golee@kwangju.co.kr



국내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민생, 현장 속으로’

광주 동구 매달 셋째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광주시 동구는 14일 앞서는 주민 복지구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생,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이동구청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한 개 동(洞)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안전관리·환경청소·도시건설·보건위생·시책홍보·자원봉사 등 7개 부문에 대한 주민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긴급지원 발급 및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한 취약지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 경로당 어르신 건강검진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한 발 앞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능동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 북구 ‘상속재산 관리 안내 책자’ 배부

사망자 재산조회 등 처리절차 소개

광주시 북구는 사망 후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상속재산 관리 안내 책자’ 3000부를 발행·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상속증거가 복잡해 과태료 등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유가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융감독원·국세청·우정청·지방법원 등 각 분야별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분야별로 정리했다.

책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재산상속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 예금․보통 ▲영업자 지위 승계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소유권이 전 등기안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분야별 신청서식과 상세문의처를 추가해 각종 서류 작성 및 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구는 책자를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골고루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에 게시해 모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책자는 민원인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쉽게 풀어 쓴 만큼 사망신고 후 절차를 밟는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golee@kwangju.co.kr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7년...진정건수 10배 늘었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7683건 접수

시설물 접근·의사소통 등 불편 호소 가장 많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 시행 7년을 맞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법 제정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 시행

됐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 도입 이후 작년 까지 7천683건의 장애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법 시행 이전(653건)보다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했다.

진정 사건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2천

439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1천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944건·12.3%), 청각장애인(943건·12.3%) 순이었다.

진정 영역은 재화·용역 서비스 1천187건(15.4%), 시설물 접근 1천222건(13.3%), 정보통신·의사소통 1천114건(14.5%), 이동·교통수단 544건(7.1%) 등이었다.

이중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은 모바일기기 이용 증가 등으로 42건에 그쳤던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307건, 작년 165건으로 크게 늘

었다.

지체 장애인에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 분야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은 웹 정보접근성 차별과 음성·수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의사소통 지원 관련 진정이 많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0일 대구·대전, 14일 광주·성남, 24일 제주 지역에서도 열린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기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